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2:4)

◎ 생활지침 ◎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제 12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주제 · 일정 확정

“교회와 국가” 주제로 9월 개강

3당 대선후도 초빙

제12학기 목회자세미나 주제가 ‘교회와 국가’로 결정됐다. 특히 이번 신학세미나에서는 여야 3당의 대통령후보도 강사로 초빙, 교회에 대한 각 당의 정책방향을 듣게 된다.

서울교회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원장이종윤 목사)은 제 12학기 목회자초청 신학세미나를 9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추석기간인 9월15일을 제외한 10주 동안 매주 월요일에 열기로 했다. 장소는 서울 YMCA강당.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 등 국가적인 이슈가 많은 만큼 세미나 주제를 ‘교회와 국가’로 정하고 요한 칼뱅이 영육의 관계로 묘사했던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심도있게 짚어보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은 여야 3당의 대통령 후보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그들로부터 교회에 대한 입장과 정책방향을 듣는 시간도 마련했다.

세미나 진행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1교시와 2교시로 나뉘어 실시되며 1교시에는 이종윤 목사의 로마서 강해가, 2교시에는 매주 각 세부 주제별로 초빙된 각 분야의 전문가

나 저명인사에 의해 강의가 이어진다.

제 1교시 로마서 강해는 성서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릴 만큼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 학기가 거듭되면서 심도를 더해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오후 제 2교시에선 ‘교회와 국가’라는 세미나 주제에 따른 각 세부 주제별로 이 분야 전문가 · 명사 등 다양한 강사를 통해 문제를 짚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제 12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 다루게 될 세부 주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허영 연세대교수),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한 교회의 사명(한완상 방송대 총장), 교회와 국가의 관계(이회창 신한국당 대선후보), 교회와 국가의 관계(김대중 국민회의 대선후보), 교회와 국가의 관계(김종필(자민련 대선후보)), 교회와 경제질서(송자 명지대총장), 교회와 바른 선거(김상철 한미우호협회장 · 변호사), 독일 통일에 미친 독일교회의 역할(박종화 기장총무), 북한교회의 실정과 재건을 위한 제안(조창호 귀환용사), 21세기 한국사회의 정신문화와 교회(이영덕 정신문화연구원 원장) 등이다.

여야 3당 대통령 후보들이 맡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라는 주제의 강의는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가 9월 29일,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10월 6일, 김종필 후보가 10월 13일

에 각각 담당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로 12학기를 맞는 목회자신학세미나는 지난 92년 시작되어 매년 2차례 개최되고 있으며 매학기 전국의 목회자가 교파를 초월하여 700~800명가량 등록하고 있다.

제 1교시	제 2교시
로마서강해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허영(연세대 교수)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한 교회의 사명 한완상(방송대 총장)
	교회와 국가의 관계 이회창(신한국당 대선후보)
	교회와 국가의 관계 김대중(국민회의 대선후보)
	교회와 국가의 관계 김종필(자민련 대선후보)
	교회와 경제질서 송자(명지대 총장)
	교회와 바른 선거 김상철(한미우호협회장, 변호사)
	독일 통일에 미친 독일 교회의 역할 박종화(기장총무)
	북한교회의 실정과 재건을 위한 제안 조창호(귀환용사)
	21C 한국사회의 정신문화와 교회 이영덕(정신문화연구원장)

새로 나온 책 - 목회자세미나시리즈 ⑤ <경건과 교양>

서양고전을 기독교적 시각에서 수용



한국교회갱신연구원원이 주최하는 ‘교회갱신과 성장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 제 6학기 강의 내용이 책으로 엮여져 나왔다.

이번에 출간된 <경건과 교양>의 내용은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 파스칼의 ‘팡세’, 밀턴의 ‘실락원’, 칸트의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 하이데커의

‘존재와 시간’, 키에르케골의 ‘죽음에 이르는 병’, 코메니우스의 ‘대교수학’,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 막스 웨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 등 서양 지성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고전 연구에 바탕을 두고 동서양의 준재들이 써 놓은 고전을 기독교적 시각에서 비판적 수용을 가한 것이다. 신학은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서야 비로소 다루는 학문이자 제학문의 근원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세계사의 흐름을 주도해 온 고전들을 섭렵하여

목회자들의 교양의 폭을 넓히자는데 초점을 맞춰 기획된 것이다.

서양 고전들은 실상 기독교적 상황을 벗어나서는 접근이 어려울 정도다. 따라서 서양 지성사의 중심을 차지하는 고전들을 접할수록 기독교 지성을 더 깊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다. 이 책을 읽는 목회자들은 신앙과 더불어 지성의 풍요함을 맛볼 것이며 평신도들은 신앙의 유서가 매우 깊다는 사실에 흡족감을 얻게 될 것이다.

<경건과 교양>을 합하여 현재 제 6권이 출간된 목회자세미나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 학기별로 강의를 묶어 출간될 예정이다.

목회자세미나시리즈는 기독교서점과 우리 교회 테이프보급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280쪽/6,500원/요단출판사)

강해설교 여호수아서

2장 1-24절

“논의 아들 여호수아가 싯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두 사람이 늙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하매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논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라”(2:1-24).



이종운 목사

세상에 대항한 라합

요단 강을 건너 것처럼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열두 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그중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만이 긍정적 보고를 했습니다.

이번엔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여리고로 정탐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는 라합이 정탐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라합이 구원받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두 정탐꾼은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 여리고로 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라합을 통해 우리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1. 하나님의 공화

하나님의 은혜와 공화를 입은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4:22). 그러나 라합은 그런 특권이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소망도 하나님도 없었습니다(엡2:12).

한편 라합은 아모리 사람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 중의 하나입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비열한 백성이었습니다.

또한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우리도 라합과 다를 것이 없는 비천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요 신분이 비천했던 라합도 구원하셨고 우리들도 구원하셨습니다.

2. 믿음은 들음에서

라합은 이방인이요, 아모리 족속이요, 기생 출신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듣고 마침내 참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롬10:17).

라합은 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 ②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사건 ③ 아모리의 두 왕을 전멸시킨 사건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라합에겐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라합은 자신이 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건을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로만 듣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듣고 믿음이 생겨 정탐꾼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의 대열에 서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만 합니다.

3. 믿음으로...라합은

라합의 믿음은 신약성경에 두 번 언급되어 있습니

다(히11:31, 약2:25, 26).

라합이 목숨을 건 위태로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는 안정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군인들의 주둔지이기 때문에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면 라합은 즉시 처형을 당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일을 그가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에게 영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라합은 믿음으로 자신의 과거, 자기 백성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라합의 입장은 동족들을 사랑하고 충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기의 과거를 접어두고 자기 백성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라합에게는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라합은 믿음 안에서 자신을 유대인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녀가 설 자리는 육신의 백성이 아니고 영적 형제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서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라합은 그의 국적을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후에 유다지파 남자 살몬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아들이 보아스요, 보아스는 모압인 룓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마침내 그의 가문에서 메시야가 나옵니다. 결국 라합은 메시야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는 믿음으로 산 라합이 받은 상급입니다.

4. 붉은 줄

라합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정탐꾼을 도와준 라합은 도시가 점령될 때 그녀와 그녀의 집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정탐꾼들에게 받습니다. 붉은 줄을 창에 달아 매어 약속의 표지로 삼기로 했습니다.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세상에 대항한 라합처럼 불경건하고 거스르는 세상 문화에 대항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선택을 하며 바르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라합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입으로 전해야 합니다. 라합의 집이 붉은 줄을 매어 구원을 얻게 되었다 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라합보다 나은 것은 우리에게 이미 율법과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섰던 라합처럼 우리의 죄악된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중등부수련회에서

제 5계명대로 살게요

엄마, 저 윤지예요. 여기는 평안 기도원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에서 주님을 느끼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은 십계명 중에 제 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곰곰히 생각해 보니 그간 저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한 것 같아요. 엄마 죄송해요,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도와주시는 아빠, 엄마를 위해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네요.

엄마! 앞으로는 정말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딸이 될게요.

엄마, 아빠의 건강이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가족 모두가 기도하면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 믿어요. 엄마 우리 열심히 기도해요. 방학 동안만이라도 가정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엄마께 윤지가



강원도 산자락에 자리 잡은 평안기도원에 인데요, 어제 밤까지 친구들과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특별히 십계명에 대해 배우면서 우리가 얼마나 생활 속에서 많은 잘못을 했는지 알았어요. 그동안 저질렀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제 곁에 계시는 것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지를 깨닫고 눈물을 흘렸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던 시간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제 5계명을 배우면서 부모님께 잘못했던 많은 것들이 생각났어요. 이제는 성경말씀대로, 부모님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엄마, 아빠께 재원이가



사람들로 가득 찬 서울을 벗어나서 공기 맑고 물 좋은 강원도로 오니까 너무 상쾌하고 즐거워요. 인적이 드문 산 중턱의 수련장은 무척 운치있네요.

수련회에 출발할 때는 별 기대가 없었는데 막상 수련회가 시작되니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성경공부도, 저녁 부흥회도 울동시간도 무척 알차고 은혜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만한 일들이 많았어요. 또 물 좋은 계곡에서의 물놀이는 지금까지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기에 충분했어요. 이렇게 수련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신 것 너무 감사해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 거리를 집으로 가져 갑니다. 집에 도착하면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만 편지 줄이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강현이가

시

축복의 새벽으로 이어져

신동기(집사, 중등부 부감)

성령의 불꽃이 터지는
7월 축제의 밤

까만 미움을 하늘 높이 던지면
하얀 사랑으로
연소되어 돌아오는
신비한 밤

우리의 눈물뿌리 땅속 깊이 파묻어
감사의 샘물되는
능력의 밤

이곳저곳 아주 먼곳까지
눈물로 반짝이는 통곡의 마당은
바울을 꿈꾸게 하는
다메섹 언덕인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긴 생명의 소리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당신께
온몸으로 드리는 찬양이
하늘 가득 채워질 때

너와 나
심장과 심장의 고백이
축복의 새벽으로 이어져
당신 손끝에 걸려 있으리

7월 29일 밤 캠프파이어 시간에

파키스탄에서 온 편지

“핼치(PIMCHI)도 생깁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가족들에게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계속 임하시기를 쉬임없이 기도하면서 파키스탄에서 오정수·노문환·홍정호·이영기 장로와 함께 문안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의 힘을 입고 지금까지 모든 일 계획한 바대로 잘 진행되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박종상 선교사를 기쁘게 만났으며 오늘은 그의 사역지를 방문하려 합니다. 다섯 분의 김치(KIMCHI)

동문들을 라홀에서 만나 핼치(PIMCHI, 파키스탄교회회신연구원) 설립을 의논하였습니다. 그들이 1995년도에 김치신학세미나에 참석하고 서울을 다녀간 후 도처에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엔 약 40여 개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 400여 명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 지도자들이 이종윤 목사를 98년도 여름선교대회 주강사로 초빙하였고 한국인 선교사 20 가정이 모두 모여 특강도 가졌습니

다. 이제 아프가니스탄 선교지도자들을 만나 의논한 후 카라치에 가서 그곳에 계신 김치동문들을 만날 예정이고 선한사마리아병원도 방문하려 합니다.

이곳 날씨는 마치 한국의 초가을처럼 시원하고 비도 내려 모두들 축복을 받았다고 기뻐합니다. 주일에 두 번 설교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난민촌과 파키스탄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서울교회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그리면서 주님 안에서 모두 건강한 얼굴로 다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파키스탄에서 이종윤 목사

농촌전도단을 따라서

맘과 열매의 공식 '1=삼십배육십배백배'

가가호호 빠짐없이 돌며 사영리, 그림없는 책, 손가락 복음 등 전도자료를 활용해 복음을 전했다. 전도단원들은 복음과 함께 서울교회 교인들이 사랑으로 준비해 준 수건, 치약, 비누, 부채, 의류, 티슈 등을 주민들에게 전했다. 작은 선물에 담긴 사랑에 주민들은 크게 감사를 표하며 "왜 이처럼 환대해 주시는가?" 하며 의아했다. 본인들은 다니지 않았지만 자녀들이 교회학교에 출석한다는 진씨 아저씨, 이씨 아저씨, 임씨 아저씨가 이제부터는 교회에 잘 나오겠노라고 약속했다. 폭염 속에 맘으로 목욕하다시피 했지만 전도단원들의 입가엔 결실의 기쁨으로 웃음이 한가득. 둘째날인 30일(수) 84명이 참석, 결신자는 4명이었다.

신석교회 교회학교 학생의 재적은 총 6명이었다. 여름성경 학교를 한다고 하니 첫날엔 10명, 둘째날엔 28명의 어린이가 출석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서울교회 온 성도들의 기도 후원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어린이들은 울망종망 모여서 서울에서 온 선생님들이 준비한 찬양, 인형극, 공작, 미니올림픽, 천로역정 게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겼다. 마치 병아리처럼 시간시간 담임선생님만 따라다니는 꼬마들, 모든 순서가 끝나도 집에 갈 생각을 않고 선생님과 함께 자겠다고 졸라댔다. 준비해 간 티셔츠가 룡드레스가 되어버릴 만큼 작은 어린이들. 그들 마음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사람은 자고로 먹으면서 친해 지는 법. 점심

에는 냉면을 만들어 들녘에서 일하는 주민들, 마을회관에 모인 노인분들께 대접했다. 저녁엔 동네잔치를 벌여 매일 150여 명 주민들이 교회뜰을 밟았다. 생명의 떡 되신 주님께서 그들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전도단원들은 봉사의 손길을 바쁘게 움직였다.



"오늘 저녁 집회에 안오시면 지금한 파마가 그냥 풀려버립니다. 자른 머릿도 그냥 길어집니다. 꼭 교회에 나오시라요." 미용분과에 봉사위원을 배로 늘여야 할만큼 전도단미용실(?)엔 손님이 북적. 순서를 기다려야 했으므로 대기표도 나눠주고 다음 날의 예약까지 받아야 하리만큼 인기가 높았다. 미용실이 된 마을회관 한편에선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음성이 기다리는 손님이 많을수록 높아져 갔다.

바쁜 농촌, 모자라는 일손에 주민들은 미처 몸을 돌볼 틈이 없었던 터라 침술을 동원한 의료분과에도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한때 자기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던 젊은이가 치료를 받으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그 집에선 불량배였던 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새 삶을 결심하자 가족

5명 모두가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 마을 이장님은 완강하고 종교적인 자유를 주장하며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다가 의료분과 전도단원들에게 다리 치료받으시고 전도단원들의 간증을 들으신 후 우선 어머니를 교회에 다니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교통사고 후 통원 치료를 하던 한 주민은 의료분과 전도단원의 치료로 다리에 새 힘을 얻어 이제 공도 칠 수 있을 것 같다며 저녁집회 시간에 이제 주님을 믿겠다고 간증하기도 했다.

전도단원이 신석교회에 도착하던 날, 시장한 전도단원들을 대접하겠다고 취사분과에서 앞을 다투어 너무 풍성하게 식사를 준비하는 바람에 계속해서 몇 끼를 먹어야만 했던 카레라이스. 노란 티셔츠를 입고 노란 모자를 쓴 전도단원들은 계속되는 노란 카레라이스를 먹으며 세상이 온통 노랗게 보였다. 그래도 그것이 모두 사랑과 봉사의 마음이 넘친 결과라고 생각하니 기쁘기만 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아직 재래식 - 일명 푸세식 혹은 풍덩식 - 인 화장실도 노랬던가.)

최형열(집사, 농촌전도단원)



농촌전도단의 둘째날 저녁집회 광경. 모두 84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동정

- ◆ 이종윤 목사, 오정수·노문환·홍정호·이영기 장로 등 파키스탄을 방문 중인 선교여행단은 5일(화) 귀국할 예정.
- ◆ 이성득 목사(3·4교구 지도)는 4일(월) ~ 9일(토)까지 휴가를 보낼 예정. 이 기간 중 비상연락 담당은 김명현 목사(호출가: 015 - 8397 - 3972).
- ◆ 오늘 점심식사는 황영주·조삼원 집사 가정에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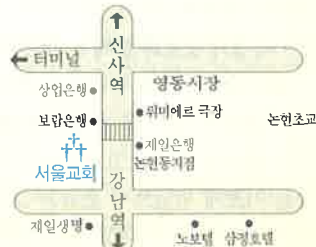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각 부서 여름행사가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2. 제 12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3. 파키스탄 선교여행단과 박종상선교사의 사역을 위해
4. 농촌전도단 활동의 결실을 위해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